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신중성

포장분야 연구 개발 본격나서



◀ 한국제지(주) 단두현 본부장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특히나 요즘 제지 분야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수출의 문이 좁아지면서 빚어진 문제로 난항을 맞고 있다.

현재 APP사가 부도 직전의 상태로 그나마 수출량은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지업계가 나아가 할 길은 험난하다.

이렇다고 해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응하여 더욱더 새로운 것으로 맞서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역으로 이용, 끊임없는 개발과 뛰어난 기술력 향상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제지(주)를 찾아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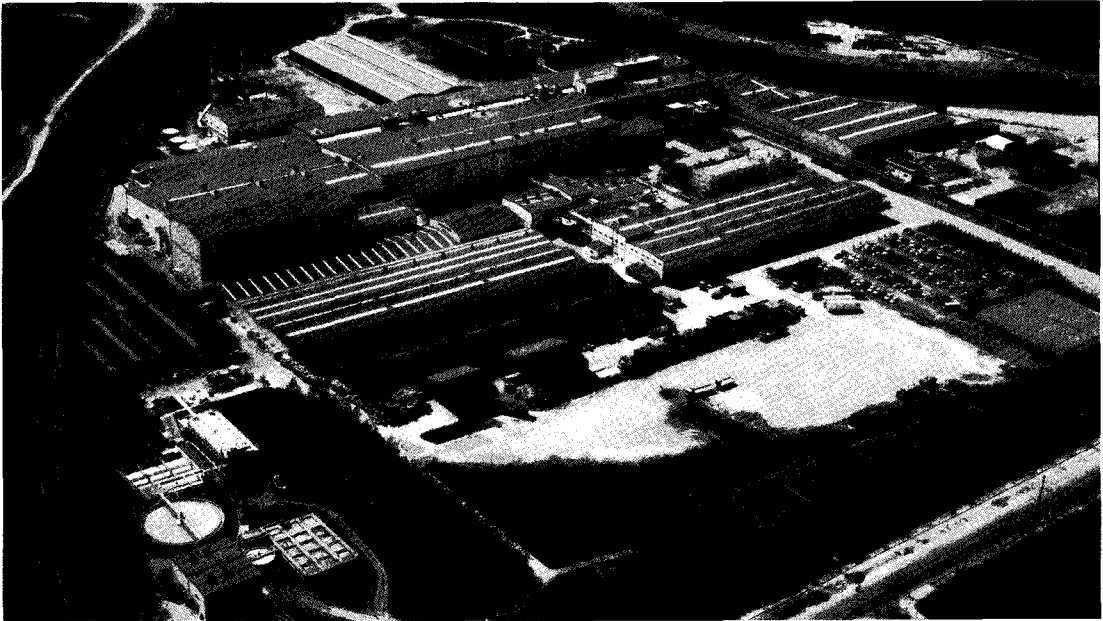
회사설립

1958년 한국특수제지공업(주)로 설립될 당시 6. 25전쟁의 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때 정부가 지원한 ICA차관 도입을 승인 받은 장백용 사장은 한국특수제지공업(주)을 설립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심사숙고 끝에 사업을 단사천 현회장(당시 이사)에게 인수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최화식, 김창운, 양치목도 뜻을 같이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특수제지공업(주)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대부분의 수입에 의존하였던 백상지를 생산,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종이시장의 안정을 기하였다.

1966년 12월 한국제지(주)로 상호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힘있게 전진하여 1967년 안양공장에 1호 코터 신설, 아트지 생산 개시, 장망식 초지 2호기 증설과 함께 백상지 생산 능력을 배가시키는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지업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72년에는 안양공장에 장망식 초지3호기 증



▲ 한국제지(주) 온산공장 전경

설과 박엽지·특수지 생산을 추진하였고, 이어 안양공장에 2호코터 증설, 초지 2호기 빌브레이드 코터 신설과 1989년 온산공장을 준공하였다. 또한 동탄공장 물류센터 운영 개시와 창동 물류센터를 운영 개시하였고, 부과제에서 팀제로 조직개편함과 함께 업계 최초 ERP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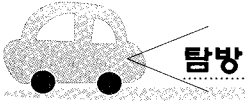
이렇게 달려온 한국제지(주)는 1969년, 1970년, 1996년, 1998년 네번에 걸쳐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96년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1998년 1억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98년 철탑산업훈장 수상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렇듯 한국제지(주)는 제지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착실히 성장하여 왔다.

카톤팩 생산

한국제지(주)는 43년간 지속적인 흑자기조와 함께 건설한 재무 구조를 유지해 옴으로써 안정 성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이렇듯 그 전통만큼이나 한국제지(주)에서 생산되는 종이는 백상지에서 가공지에 이르기까지 무척이나 다양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더블코팅 기술을 개발 적용한 더블아트, 더블아트에서 한걸을 더 나아가 코팅량을 높이고 고백색 특성까지 부여한 슈퍼아트, 한 면만 코팅하여 앞뒤가 다른 편면아트, 더블스노화이트와 백상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종이로 불투명도가 우사하고 부드러운 표면이 독특한 질감을 주는 M-매트,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의 더블스노화이트, 다양한 생상과 적당한 평활도, 백색도, 인쇄적성 때문에 출판용지에 가장 널리 사



탐방

용되는 유광지, 최근 초중고생의 학습 참고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출판용지인 크린학습지 등의 주요 제품이 있고, 예전에는 포장 재료로써 카톤팩 생산에 주력을 다하여 왔다.

“카톤팩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될 당시 거의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제지(주)에서는 1986년 독립 부서로 카톤팩 사업본부를 새로 설치,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라고 단두현 본부장은 설명했다.

한국제지(주)는 1991년 당시 서울우유, 빙그레 등 18개 업체와 거래관계를 맺었다. 한번 맺어진 거래 업체는 한국제지(주)만을 찾았고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되어 노력했기

때문이다. 한국제지의 카톤팩 영업 목표는 1) 신규 거래처의 개척 및 획득 2)수출 시장의 확대 3)기존 거래처의 안정적인 관리 및 거래량 증대에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매 전략은 1) 대기업 위주의 판촉 활동 집중 2)시장 정보 수집의 체계화 3)1인 1개 신규 거래처 확보 운동 전개 4)제품의 적기 공급과 신속한 클레임 처리 5)해외 시장 다변화를 들 수 있다.

한국제지(주)는 1987년의 장기간 노사분규로 큰 타격을 받기도 했으나 반월공장 준공 이후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갔다.

이후 1993년에는 (주)한국팩키지를 설립하여 카톤팩 사업본부를 분리 독립시켰다.

현재 한국제지(주)에서는 백상지 4종, 중질지



▲ 한국제지(주) 가동중인 공장 내부



▲ 한국제지(주) 본사 사무실

2종, 정보산업용지 6종, 기타특수지 8종, 아트지 13종, 가공특수지 9종을 생산하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신중성을 기하고 끊임없이 꾸준한 기술개발로 얻은 고객들의 신뢰는 한국제지의 자랑입니다. 또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한국제지(주) 직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제지(주)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회사를 ‘제2의 보금자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회사에서는 사원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임금이외의 간접비 지급과 사원들의 여가 선용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한 동호회, 오락시설을 두었고, 경쟁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식을 길러 스스로 문제를 인식, 발굴,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육

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자율적인 독서습관 정착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Manpower 향상 도모를 위한 독서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학 검정제도를 두어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하고 어학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제지(주)는 유달리 장기근속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항상 새로운 것에 투자하며, 개척하고자 하는 한국제지(주)는

2001년 3월부터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였다.

“포장이라는 분야의 발전가능성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포장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구어 나갈 땅이 많습니다. 한국제지(주)도 포장이라는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포장발전에 한 몫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단두현 본부장은 말했다.

한국제지(주)는 앞으로 2001년 7월 초지3호기 설치 완료 할 예정이고, 2001년 8월 상업생산 할 계획이다.

우수한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전, 품질의 안정성 확보와 적기 공급을 위한 성실한 노력, 내일을 생각하며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열어 나갈 한국제지(주)의 모습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침반의 역할을 해 내리라 생각된다. ☐

권해진 기자